

창원 의회 소식

제18호

주남저수지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창원 의회 소식

제18호

CONTENTS

04 개 회 사

06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51회 임시회(2015. 9. 2. ~ 9. 7)
- 제52회 임시회(2015. 10. 15. ~ 10. 23)

17 예산심의 활동

20 시정에 관한 질문 & 답변

- 제52회 임시회(이옥선 의원 등 4명)

22 5분 자유발언

- 제51회 임시회(박춘덕 의원 등 10명)
- 제52회 임시회(김영미 의원 등 3명)

26 건의안 및 결의안

-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

30 위원회 활동

3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1 언론 보도자료

56 의원 칼럼

의장_ 유 원 석

존경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 그토록 무덥던 폭염도 물러나고 아침,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으며, 가을의 기운이 완전히 나타난다는 백로를 앞두고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우리 국민들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북한군은 묵함지뢰 도발과 포격도발을 자행하고서도 도발을 부인하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최고조로 높이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지켜내고 이번 기회에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우리 정부와 군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의연한 용기와 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고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는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 등 원만히 해결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겠다고거나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 나가 내 몸을 바쳐 가족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젊은이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애국심을 보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군,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리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 창원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결의되어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6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역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요청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 소외계층 위문활동 등의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고향의 따뜻한 정도 듬뿍 담고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 유원석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5. 9. 2. ~ 9. 7 ——— 6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제 의 자 : 의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김헌일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 및 보임코자 함.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일원에 위치한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내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원 새 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운동장을 폐지하고 체육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하며 또한 인접한 중앙공원내 운동시설(공도장)을 본연의 용도에 맞도록 체육시설 신설 부지로 편입하여 향후 종합 스포츠파크로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시설 : 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배여진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의 신청기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간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시책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코자 함.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이상인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 주민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허가)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조영명 의원 등 10명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원시 금고 지정의 공정성 및 시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주철우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생활 확인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의 등록과 시설의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세입징수포상금의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의 체납액 징수 등 동기부여 확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나.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이 창원시와 민간 공동출자로 추진 중이었으나 민간출자가 어려워 재단법인 설립 보류 및 일자리창출 부서와 일자리만들기 민관산학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이천수 의원 등 10명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피해 농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창원 평성일반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최근 창원시 산업용지 증가율은 경남과 전국 대비 30%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산업단지 개발로 산업용지 신규 공급이 절실한 실정으로, 인근 함안군의 경우 저렴한 산업용지가 공급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등록업체 증가율이 창원시의 3~6배에 이르고 있고 기존 창원시 소재 기업들의 역외 유출이 반영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기업 역외 유출 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신규공급을 위하여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 따른 지방재정에 부담감을 줄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통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코자하며,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극대화 하여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평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회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함.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5. 10. 15. ~ 10. 23 ——— 9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김종대, 김순식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동호회 조직 요건과 장애인 체육지원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민주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위한 사업의 재정적·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법제처 규제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투명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 확보를 위해 자치권 향상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및 단체의 자치권 향상 촉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기금설치 목적 달성 및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통합관리기금이 운용됨에 따라 지방채상환적립금을 폐지하고 지방채상환적립금의 설치·운용 근거인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산을 시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도시개발공사 재산 무상 사용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영미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3·15아트센터 건립취지에 근거하여 3·15의거 기념사업회 주최 및 주관 행사에 대하여 3·15아트센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함.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 활동 관련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내서·자은 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 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사용자의 감면대상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용어와 맞도록 정비하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사용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불합리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사항을 규제개혁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리·반동리 일원 38만평의 부지에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2013년 10월 착공 후 본격적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 최대 출자자인 울트라건설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 사업정상화를 위해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창원시와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로봇랜드재단이 함께 (주)대우건설을 대체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차례 협상을 통해 의회 승인 후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지난 9월 23일 (주)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사업중도 해지시 귀책사유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해지지급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외의 의무 부담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보험 가입 시 자전거 등록한 창원시민 및 누비자 이용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 절감 및 대인사고 보장내용 개선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이행 권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交通安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주차장 설치 조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개선하며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장려 및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 대상별 보조금액을 세분화하고 보조기준 및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음.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전국에 산재된 고운 최치원 유적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화융성 도시로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도시저소득주민의 집단 거주지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지 내 소방도로가 없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마산합포구 월영동 599-31번지 일원의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진해구의 지속적인 공업용지 수요의 증가와 공장의 집적화를 위한 동시에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해구 죽곡동 산106번지 일원에 죽곡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진해국가산업단지 및 죽곡일반산업단지와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 강화 및 산업의 직접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원가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간 산업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증대와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도시자연공원)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내서읍 신감리 일대는 광려산과 인접하여 맑은 공기, 맑은 계곡으로 등산객들의 명소이나, 공공하수도시설이 미흡하여 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음식점의 영업 오수가 인근 광려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서읍 신감리 신목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방류하천인 광려천의 수질보전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시설 : 하수도[공공하수 처리시설])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최근 창원시 산업용지 증가율은 경남과 전국 대비 30%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산업 단지 개발로 산업용지 신규 공급이 절실한 실정으로, 인근 함안군의 경우 저렴한 산업용지가 공급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등록업체 증가율이 창원시의 3~6배에 이르고 있고 기존 창원시 소재 기업들의 역외 유출이 반영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기업 역외 유출 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신규공급을 위하여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하오며,
- 2012. 10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의 해제 총량에 따라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이원에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추진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1 구성개요

- **일 시** : 2015.10.15.(목)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위 원 수** : 9명
- **안 건 명**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방종근	김영미	박춘덕, 강호상, 배여진, 한은정, 조영명, 전수명, 노창섭	

02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 (2015.10.15.)**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 (2015.10.22.)**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3 심사결과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01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계	2,750,561,648	2,669,896,454	80,665,194	3.02%
일반회계	2,033,457,465	1,993,071,016	40,386,449	2.03%
특별회계	717,104,183	676,825,438	40,278,745	5.95%

0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750,561,648	100%	2,669,896,454	100%	80,665,194	3.02%
일 반 회 계	2,033,457,465	73.93%	1,993,071,016	74.65%	40,386,449	2.03%
특 별 회 계	717,104,183	26.07%	676,825,438	25.35%	40,278,745	5.95%
공기업특별회계	292,166,658	10.62%	263,551,256	9.87%	28,615,402	10.86%
기타특별회계	424,937,525	15.45%	413,274,182	15.48%	11,663,343	2.82%

03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750,561,648	100%	2,669,896,454	100%	80,665,194	3.02%
지방세수입	653,374,000	23.75%	653,374,000	24.47%	0	0.00%
세외수입	504,702,741	18.35%	496,229,120	18.59%	8,473,621	1.71%
경상적세외수입	459,487,150	16.71%	451,207,623	16.90%	8,279,527	1.83%
임시적세외수입	45,215,591	1.64%	45,021,497	1.69%	194,094	0.43%
지방교부세	308,765,000	11.23%	303,921,054	11.38%	4,843,946	1.59%
조정교부금등	171,625,000	6.24%	171,625,000	6.43%	0	0.00%
보조금	700,219,925	25.46%	670,307,371	25.11%	29,912,554	4.46%
국고보조금등	524,648,298	19.07%	519,025,635	19.44%	5,622,663	1.08%
시·도비보조금등	175,571,627	6.38%	151,281,736	5.67%	24,289,891	16.06%
지방채	54,000,000	1.96%	40,000,000	1.50%	14,000,000	35.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7,874,982	13.01%	334,439,909	12.53%	23,435,073	7.0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4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750,561,648	100%	2,669,896,454	100%	80,665,194	3.02%
일반공공행정	173,539,237	6.31%	149,615,382	5.60%	23,923,855	15.99%
공공질서및안전	38,025,195	1.38%	33,306,975	1.25%	4,718,220	14.17%
교육	33,080,140	1.19%	27,509,384	1.03%	5,570,756	19.16%
문화및관광	258,286,564	9.39%	252,205,257	9.45%	6,081,307	2.41%
환경보호	275,472,099	10.02%	273,048,368	10.23%	2,423,731	0.89%
사회복지	739,803,604	26.90%	723,543,810	27.10%	16,259,794	2.25%
보건	37,597,373	1.37%	37,450,042	1.40%	147,331	0.39%
농림해양수산	108,150,508	3.93%	102,367,249	3.83%	5,783,259	5.65%
산업·중소기업	99,282,938	3.61%	92,200,671	3.45%	7,082,267	7.68%
수송및교통	286,505,239	10.42%	285,040,838	10.68%	1,464,401	0.51%
국토및지역개발	289,463,032	10.52%	270,872,686	10.15%	18,590,346	6.86%
예비비	13,118,348	0.49%	19,988,745	0.75%	△6,870,397	△32.87%
기타	398,237,371	14.48%	402,747,047	15.08%	△4,509,676	△1.12%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10. 20.(화)10:00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욱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야구장 신축과 관련(해양신도시에 야구장 신축건의 등)과 재개발, 재건축문제에 대하여



질문

창원 새야구장이 마산운동장 부지에 신축하기로 했으나, 국·도비의 확보 등 애로점이 있다. 새야구장을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

야구장 입지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이제 야구장 부지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등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부지 이전은 행정력의 낭비다. 야구장은 접근성이 필요하며, KBO와 NC다이노스의 입장도 확고하기 때문에 마산운동장 부지가 적당하다. 해양신도시는 국제적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노 창 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우수식품비 예산 편성과 로컬푸드 지원사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건



질문

학교급식 우수식품비가 지난 3월 27억 70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하반기 부족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하반기 예산편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



답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농법 판로 확보로 농촌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도 예산에 우수식품비가 편성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동안 경남도와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비율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우수식품비의 추가 편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39사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관련



39사단 부지의 개발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39사단 이전 및 부지 개발은 모두 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밟아 진행 되어 왔다. 39사단 이전 부지 토지이용 계획을 세우면 지가가 상승해 이익이 많아진다. 기부재산은 현재 가치 기준이고 양여재산은 개발 이익이 반영되기 전의 가치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창원시가 큰 이득을 보게 된다. 남은 이익은 공익목적에 쓰겠다.

방 종 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대원 3구역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대원 3구역은 어떠한 법 조항에 의거 조합설립을 승인 했는지 설명해 주기 바라며, 용적률 146%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지?



대원 3구역은 소유자의 77.3%, 토지면적의 8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대원3구역은 기준용적률 120%에 용적률 인센티브 26%를 적용받아 146%의 용적률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행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9. 2.(수)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 통일 독일과 한반도 통일 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펀드 조성에 창원시민의 참여를 호소한다. 독일은 통일 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었고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맹주가 되었다. 창원시와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의 통일 펀드 조성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시민의 긍지를 대외에 공표하고 후손들에게 통일 대박의 단초를 제공하자.



강 영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 주민이 공감하는 주남저수지 보전과 생태관광 계획 수립 요구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종합관리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를 가졌지만 주민 의견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주남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며, 주남저수지와 연계하는 생태관광 자원을 찾아야 한다.



공 창 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창원시립상복공원 시설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

창원시립상복공원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의 신설을 제안한다. 장례식장, 화장장이 있는 상복 공원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를 이용할 경우 인근에 도착해 40여분을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노선버스를 신설하고 향후 이용객의 수에 따라 조정하면 된다.



주 철 우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범사업 추진해야**

도시형 독거노인 공동 생활가정의 시범사업을 건의한다. 창원시 노인인구 11만 명중에서 24.2%가 독거노인이며, 35%는 질병을 앓고 있다. 삭막한 도시지역에 공동 생활가정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위태로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전문상담사의 꾸준한 상담활동도 전개해야 한다.



한 은 정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로컬푸드를 접목해야**

2018년 개최되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공정무역과 로컬푸드를 접목해야한다. 2012년 런던올림픽은 공정무역을 표방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로컬푸드 도시락 사업으로 지역 경제 상생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가공식품 등 지역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스폰스십'을 제안한다.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7.(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 **해양생물테마파크, 시설공단에서 운영해야**

진해구 해양생물테마파크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년간 장기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해 온 업체의 기증품 부실관리, 근무하지 않은 인력의 급여 지출, 조작된 감정 평가 목록 등을 묵과할 수 없다. 해양공원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이 운영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 관광지 외래어 명칭을 한글로 바꿔야

창원시 외래어 명칭을 한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에 정체불명의 외래어로 된 둘레길과 공원 이름으로 인하여 관광지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공모 등을 통해 한글 고유의 이름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진해 드림로드와 드림파크를 한글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노 창 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 학교 우수 식품비 2학기 추가분 예산 편성해야

창원지역 학교에 우수 식품비 2학기 추가분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수식품비를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연속성에 맞지 않다. 우수 식품비 부족분 24억 원의 10월 추경 편성과 예비비로 있는 무상급식비 창원시 분담 분 102억 원의 학교 급식비 편성을 촉구한다.



송 순 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 창원시장, 도지사에게 당당해야

도지사의 창원시에 대한 발언과 공동사업 철회, 광역시 포기 강요, 야구장 도비지원 중단 등에 대해 창원시는 당당하게 맞설 것을 촉구 한다. 무상급식과 공공의료의 확대, 의회 존중 등 차별화된 시정을 통해 창원시의 자치권을 지키고, 창원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당당해야 한다.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10. 15.(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촉구하며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가치와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이 제약을 받기에 주위의 관심과 지원이 그 무엇보다 절실 하다.



김 삼 모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국도25호선 대중 교통망 구축 촉구**

많은 시민과 학생등,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해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된 도로를 우리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중 교통망 구축을 촉구한다.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 **39사단 난개발 중단하라**

39사단이전 부지와 주변지역을 조화롭게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행정 문화,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후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개발을 해야만 될 것이다.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10. 23.(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재 철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마산에 맞는 상징물인 관광등대 조성**

마산어시장과 연계하고 마산국화축제를 상징하는 국화모양의 등대를 건립하여 마산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수 있도록 특이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하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이 근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 **창원시는 마산문화원의 영화자료관 보존에 적극 나서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마산영화자료관이 새야구장 건립으로 폐관될 위기에 봉착되었다. 마산항 서항지구의 문화예술테마파크에 영화자료관을 설치한다면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이자 중요한 소재가 될것이라 확신한다.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정부의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사업이 지난 8월 1차로 선정되어 창원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하나로 통합된 창원시는 대한민국 자율통합 1호 도시로 지난 40여년간 조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으나 기계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경쟁력 약화, 통합으로 인한 갈등 잔존 등으로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의 전략적 접근과 배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진해구 웅동·웅천·남산지구)내에 위치해 있어 성공적 투자여건과 김해공항, 고속철도, 부산진해신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 거제, 통영, 여수 등 남해안의 화려한 해안관광자원을 하나의 해양관광벨트로 연계할 수 있는 최고의 거점지역으로 향후 남해안과 동북아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과 연계하여 오는 11월로 예정된 RFP 제출과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공모사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략이나 이기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광역시로 편중됐던 국책사업의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비수도권 중 배후인구, 교통인프라 등 복합리조트 수요와 뛰어난 입지 및 우수한 환경적 조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실한 진해 웅동지구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실현시킬 최적지이므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최종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민 모두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곳이 정부의 복합리조트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창원의 제2도약을 염원하는 우리 108만 창원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국가경제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 5개에서 4개로 축소될 것이라는 움직임에 대하여 108만 창원 시민은 강한 분노와 함께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2010년 7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8만, 행정구역 면적 747km², 예산액 2조 5,000억원의 광역시급 규모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였으며 지난 5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탁상논리에 맞춰져 통합 창원시의 선거구 5개중 1개를 줄인다는 발상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통합의 구심점을 잃게 하여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창원시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것은 지자체 통합으로 특정지역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 주민의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명시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전면 배치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도시로서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할 창원시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에도 동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선거구를 인구 100만 수도권 도시와 비교하여 선거구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창원시가 3개 지역의 인위적인 통합도시라는 점과 광역시급의 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제20대 총선에 적용하려는 선거구의 인구 기준에도 창원의 5개구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타당성과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봉합되어가고 있는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전면 위배되며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법률적 정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통합 창원시의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5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0.15 ~ 10.23(9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11.25 ~ 12.18(24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장)하여 현장 및 사업 현황을 청취 하였다.

- ☑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2015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남해를 방문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파크 시설과 선진 장사문화 현장 추모누리를 견학하여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 비교 견학을 실시 하였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51회 창원 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하였으며,

☑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10월 26일, 광양시 중마 노인복지회관과 광양 5일장, 광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 활동사항을 건학하고 상호간 교류 협력하는 계기를 가졌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이치우)는 제51회 창원 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 9월 3일, 창원수목원을 현장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 안을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또한, 10월 16일에는 마산 꽃양묘장과 가고파 국화 축제장을 현장방문하여 축제준비현황을 점검하였고, 10월 21일에는 부산진해신항을 해상견학하며 신항개발 계획 및 중심준설공사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개발계획 협의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 10월 6일~7일, 이틀간 아이디어 발굴과 시정 접목을 위해 경남 거제 이수도와 맹종죽 테마공원 및 김영삼 대통령전시관 해양 및 역사문화관광인프라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 첨부 찬성의견 채택하였으며,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평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
▷9월 3일 내서 평성 일반 산업 사업장등의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현황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월영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 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 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의건을 찬성의견채택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부대의견 첨부 찬성의견 채택하였다.

☑ 10월 26일~10월 27일, 이틀간 아이디어 발굴과 시정 접목을 위해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와 청주시청 및 청주시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0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9월 1일 의장단 간담회



9월 2일 미스 어스차이나 수상자 창원시의회 방문



9월 2일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9월 3일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례안 심사



9월 4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조례안 심사



9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0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9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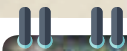
9월 7일 제6회 창원시의회의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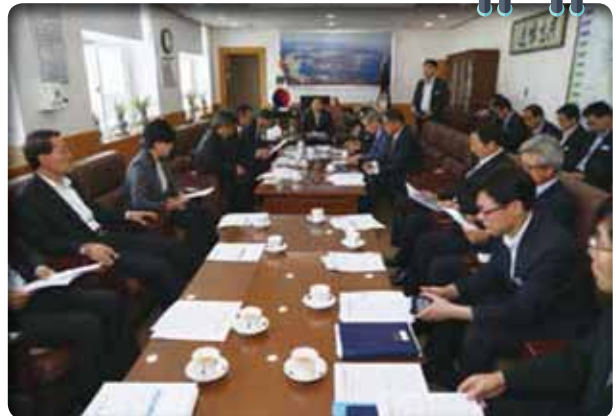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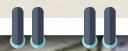
9월 9일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초청 특강



9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비교견학



9월 12일 경남은행 창원둘레길 걷기대회 참석



9월 15일 의장단 간담회



9월 16일 광복70주년 기념 탈북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한마당 축제



9월 16일 대한 노인회 진해지회장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



9월 17일 의장단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9월 18일 제180회 경南市·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9월 19일 제4회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



9월 24일 대방중, 양덕중학교
학생 창원시의회 방문



10월 3일 제17회 창원 남산 상봉제



10월 5일 성지여자 중학교 학생 창원시의회 방문



10월 6일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타시군 비교견학



10월 6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10월 8일 창원시의회 의원 한마음 다짐 등산대회



10월 14일 창원시 한마음 보육 콘서트



10월 15일 제52회 창원시 임시회 개최



10월 15일 창원 광역시 승격추진 관련 토론회



10월 23일 바르게 살기운동
창원시 회합 한마음 다짐대회



10월 24일 제 7회 환경수도 창원 그린엑스포 참석



10월 24일 창원시 재향군인회
제5회 통합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26일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회 비교견학



10월 28일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29일 제15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10월 31일 제4회 창원단감 축제



10월 31일 시민대동제



11월 2일 2015년 경남지역 장애인 정책 결과 발표 및 우수의원 시상식



11월 3일 로컬푸드 정책과 공공급식에 관한 토론회 개최



11월 4일 자매결연 고흥군 여성단체 친선교류



11월 8일 해군과 함께 달리는 진해 마라톤 대회



11월 9일 의정연찬회



11월 9일 의정연찬회



11월 10일 의정연찬회



11월 10일 의정연찬회



11월 13일 제181회 경남 시군의회의
의장협의회 정례회



11월 18일 갑론을박 시민300인 원탁 토론



11월 25일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특별 강연회



창원시의회 제51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다루며,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과 환경해양농림 축산위원장 보궐선거 및 5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9월 2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및 환경 해양농림축산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9월 3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및 포격도발로 인하여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정부와 군의 확고한 의지, 국민들의 용기와 군에 대한 신뢰로 북한의 사과 및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의 활성화라는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떤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여도 정부와 군,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헤쳐 나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갈 것과 더불어,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를 위한 현안 사업 등도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 한다면 한단계 더 발전하는 창원시가 될 것이라 확신 한다며 다가 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대비하여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 소외계층 위문활동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 하였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장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에서는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장 방문을 통하여 농민이 필요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수 있다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부족한 농기계 추가 구입으로 농업인 부담경감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방종근 의원” 선임



창원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방종근(팔룡, 명곡동)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미(비례) 의원을 지난 10월 15일 각각 선임하였다. 예결특위는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박춘덕(의회운영위), 김영미·강호상(기획행정위), 배여진·한은정(경제복지문화여성위), 조영명·전수명(환경해양농림축산위), 방종근·노창섭(도시건설위)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방종근위원장은 “이번 제52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창원수목원 등 현안사업장 방문 점검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과 소속의원은 9월 3일 창원수목원 조성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유기동물 보호소 등 시설을 점검하였다.

창원수목원 조성사업은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무궁화광장, 동요의 숲 등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업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시민들의 휴양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심속 생태휴식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테마식물 학습장 등 시설을 점검하고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소음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시급함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해군 남해스포츠파크, 추모누리 시설 견학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정쌍학)에서는 2015. 9.10~9.11 이틀간 남해스포츠파크와 추모누리 시설을 견학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첫날 10일은 관광지로 유명한 독일마을, 다랭이 마을, 해오름 예술촌 등 우수관광시설을 방문하였으며, 11일에는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이 접목되어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휴식공간 및 자연속의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된 “남해스포츠파크”와 여러 형태의 장묘문화를 한 곳에 집결시킨종합장사시설인 “추모누리”를 방문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비교견학을 통하여 창원시의 발전방향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은 9월 21일 진해재활원을 방문하였으며, 9월 22일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풀잎마을외 3)을 방문하고, 위문품으로 과일 총 89박스(2,000천원)를 전달하고 위로·격려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시설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창원시의회의회장(유원석)은 “소외된 이웃에게도 보듬달처럼 밝고 희망이 가득찬 추석이 되어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하루동안 환한 웃음이 가득한 날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현장 방문



경남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3일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지 및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사업지 등 마산지역 주요 사업장 일원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3,57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도시 재생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림시장 주변 공원 및 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오는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 초청 특강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9월 9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평화통일과 남북관계의 전망’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연은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및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으로 남과 북이 전면전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가늠해 봄으로써 올바른 안보의식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배우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박재규 총장은 통일부장관,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 남북장관급회담 남측수석대표 등을 지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평소 언론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 등을 열정적으로 강의하였다.

유원석 의장은 “의원 및 공직자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졌을 때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의원 및 공직자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 비교 견학 실시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월 26일과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청주시를 방문 견학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일정 첫날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하여 세종시 도시계획 현황 청취 및 사례 등을 연구하여 창원시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이튿날은 청주시를 방문하여 통합 후 지역갈등 해소 방안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연구 등을 통해 통합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도시건설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원 개개인의 전문습득과 역량 강화에 비중을 두어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비교 견학을 통해 창원시의 균형 발전은 물론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시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우리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는 지난 9월 18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80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가졌다.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허홍 밀양시의회의장 등 경남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례회는 유원석 회장의 개회사, 허홍 밀양시의회의장의 환영사, 박일호 밀양시장의 축사에 이어 의정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후 협의회 간사로부터 의장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동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허종홍 합천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건의문은 지난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 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일본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창원시의회 제52회 임시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처리를 비롯하여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다루게 된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10월1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10월20일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10월2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실시 한 후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창원시가 국민안전처 주관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서 민방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을 축하하며, 축제의 계절을 맞아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으로 단순히 일부 시민만 즐기는 축제가 아닌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명품 축제로 발돋움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차질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의에 의원들에게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 대한 사전 준비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생산적인 의회, 보다 성숙한 의회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준비현장 등 현안사업장 방문 점검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과 소속의원은 10월 16일 농업기술센터 마산 꽃 양묘장과 마산가고파 국화축제장 준비현장을 시찰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는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개최예정으로 마산 꽃 양묘장에서 그동안 재배한 국화를 가고파국화 축제장으로 이송하며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장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제준비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다륜대작 준비 등 그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국화재배를 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꽃 축제로 자리 잡은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SNS 마케팅 등 홍보 다양화와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당부하였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진해, 부산항 신항 공사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과 소속의원은 10월 21일 진해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 공사현장을 시찰하였다.

신항은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라 12,000 TEU급 이상의 선박이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항로 증심 준설공사가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며 향후 남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 항로 확장 등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진해구 안골동에 위치한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신항 현황과 향후 추진될 준설 및 항로 확장 등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해상에서 증심 준설공사 현장과 친수 호안 조성지 등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웅동 투기장내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과 배후단지 주변 수송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 주체가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광양시 중마 노인복지회관과 광양 5일장, 광양시의회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광양시 중마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노인복지사업 운영 현황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광양 5일장(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 활동사항을 견학 하고 상호간 교류 협력하는 계기를 가졌으며,

이순신 대교 등 광양의 문화관광 실태파악을 위한 시내투어를 실시하였다. 이상인 위원장은 “금번 현장 비교견학을 통해서 의회운영 우수 사례에 대한 의견교환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실태, 전통시장 지원사업, 문화관광 특화사업 등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밝혔다.



해양환경농림축산위원회 가을철 단감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원시 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이치우) 소속의원들은 가을철 감 수확기를 맞아 11. 4일 창원시 동읍에 위치한 단감재배 과수 농가의 단감수확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가의 애로점을 자연스럽게 청취하였고, 농촌인력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에

생산 노동력 절감과 판로확대 등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치우 위원장은 단감따기 일손돕기로 미려한 힘이나마 과수농가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체험한 만큼 앞으로 우리지역 농가의 경쟁력과 소득 향상을 위해 시 의회에서 힘을 보태겠다며 참여소감을 전했다.



로컬푸드 정책과 공공급식에 관한 토론회 개최



창원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대표의원 노창섭)는 11월 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먹을 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창원시 로컬푸드 정책과 공공급식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하용 창원시의회 부의장과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시의원, 농민, 농업관계자, 학교급식 관계자,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경남연대 상임대표 진현극 좌장의 진행으로 3시간 동안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가 첫 주제발표자로 나서 창원시의 로컬푸드 정책과 공공급식, 지역 먹을 거리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이후 전북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한지수 본부장의 완주군 로컬푸드 전략과 정책이란 주제로 두번째 발제가 있었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창원시의회 주철우의원, 김영미의원과 권병림 창원시 로컬푸드 생산자 대표,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 교육센터장, 김형근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등 5명의 토론자들 간에 로컬푸드 정책과 방향, 로컬푸드 조례 제정, 공공급식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로컬푸드연구회 대표 노창섭의원은 “지금 우리의 밥상은 정체 불명의 초국가 농식품 기업들이 생산하는 먹거리들로 위협받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먹거리들을 지역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푸드 정책의 활성화가 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108만 창원시민들의 건강한 밥상과 지역 농산물의 안전한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의회 글로벌테마파크 유치 기원 다짐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11월 9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기원하는 다짐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기원 다짐 대회는 2015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 연찬회 중 가졌으며, 전체 42명의 의원이 전원 동참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기원하여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특히, 창원시 의회는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진해 글로벌 테마 파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남산·웅천지구 86만 평(285만㎡)에 4조 2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폭스사 등의 대형 테마파크(놀이공원) 조성과 함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핵심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골프장·마리나·테마호텔·콘도리조트 등 13개 시설을 한곳에 조성하는 게 사업 주요 골자다. 내년 3월까지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개발 계획을 세워 하반기에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유원석 의장은 “창원시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연 1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김해공항과 세계 5위 규모의 부산진해신항 등 지정학적 이점과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의 성공적인 투자여건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반드시 최종 사업자로 선정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마산 오동동에 일본군 위안부 다짐비를 세우며



김 종 대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2015.9. 25 창원시보 제126호 게재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아베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역대 정부가 인정한 ‘아시아 나라들에 끼친 피해의 역사적 사실과 통절한 반성’에 대해 “후손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면서 ‘충분하지도 않은 제대로 된 인정과 사죄’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해 책임을 회색시키려 했다. 참으로 문명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섬나라 일본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성 노예(enforced sex slavery)’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20만 명 이상의 어린여성들을 강제동원해 일본군대가 관리 통제하는 점령지의 위안소에서 자행한 집단적 성폭력과 전쟁범죄였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피해 할머니가 경남의 25분 중에 7분이 생존해 계시며, 창원에는 4분이 거주하신다. 지난 2013년 6월,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참혹하게 유린당한 반인륜적인 범죄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 보편적 인권의 명예회복을 통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 추모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의지와 기금을 모우고, 조형물 작품을 공모했으며, 오동동상인회의 소녀상유치 제안으로 ‘건립장소선정위원회’ 전문가들이 건립 장소에 대해 오랫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으며, 진화여론조사로 창원시민 560명의 의견과 공청회 등 공론 절차를 거쳐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지 입구에 ‘인권 자주 평화의 다짐비’를 세우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마산은 영남권 여성들의 강제동원 중간집결지였고, 다짐비 건립 장소 앞은 주민들의 자생조직인 ‘민의소’가 있던 곳이며, 자유당 시절에는 한국 민주화의 도화선인 ‘3.15민주항쟁 발원지’였고,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의 주요 활동지로서 근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 깊은 곳이다. 차없는 거리, 문화광장으로 연결되는 입구로 접근성이 높고 창동예술촌과 연계된 관광코스로 후세대에게 훌륭한 교육장소로 평가될 곳이다. 일부 시민들은 소녀상 건립 장소로서의 부적절함을 말하지만, 문화광장이 조성되면 소녀상과 함께 오동동 구도심의 재생과 오동동의 정체성과 문화가 새롭게 창출된다. 또,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인 보편적 인권과 자주, 그것을 통한 미래평화를 다짐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다.

마산항을 상징하는 관광등대를 만들자

2015. 11. 20 창원시보 제130호 게재

천혜의 자원을 가진 마산항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여 포근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마산 앞바다에 관광객이 머물다 갈만한 관광명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마산 앞바다에 있는 등대는 등대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마산을 상징하는 등대 건립을 제안한다. 지금의 등대 주변에 관광등대를 만들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머물도록 해 전통시장인 어시장을 구경하고, 건어물도 구입하고, 크루즈 유람선도 타보고, 회와 장어를 먹고 간다면 경기 활성화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은 등대도시로 통한다. 기장군 해변항 일대 4km 구간에는 이색 등대 5기가 방파제마다 설치되어 있다.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4강 진출을 기념해 2003년도에 만든 '월드컵 등대', 2009년도 부산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뜻에 '젓병 등대', 기장군 칠합항에는 글러브, 배트, 야구공 모양의 '야구 등대', 2010년 8월 개방된 울산신항만 남방파제에서는 육지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15도 가량 기울 '피사의 등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 동구에 '울기 등대'와 울주군의 '간절곶 등대'를 찾는 관광객은 2011년 48만9,260명, 2012년 50만4,180명, 2013년도에는 등대와 대왕암을 찾는 관광객이 133만 명으로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한다고 한다. 등대가 유명해지면서 1박2일 등대지기 체험프로그램의 경쟁률도 높아 매년 10대 1의 수준이며 신청자의 80%가 다른 지역 사람이다. 그 밖에도 부산의 '영도 등대', 여수 '오동도 등대', 포항의 '호미곶 등대' 등 지역을 상징하는 등대는 수없이 많다. 마산 항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를 상징하는 국화모양의 등대를 만들어 LED조명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오게 하면 야간에 매우 아름다워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밤에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마산항을 들어 올 때 멋진 야경이 될 수도 있다. 또 마산은 세계적인 조각가인 문신의 고향이기에 문신의 조형물처럼 예술적인 조형물과 아름다운 조명을 가미한 등대도 예술도시 마산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산에 맞는 상징물인 관광등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본다.



김 재 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긍정의 힘



김영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언론사 게재

첫 눈이 내렸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렌다. 하얀 눈에 서로 발자국을 찍으며 재잘거리던 옛 친구들이 생각난다. 인생 역정이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고운 꿈들은 간직하고 살겠거니 싶다. 창동 오동동거리에 나갔더니 김광석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불행 탓인지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다. 경제적 이유로 사소한 말다툼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한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 해서라며 후회해도 이미 늦다. 한 가정과 지역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이기에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꾸려가야 한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꿈을 꽃피울 수 있는 사람이 늘 아름다운 법이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내 탓이요”라고 성찰하는 생활의 자세가 더 소중히 여겨진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힐링, 치유란 단어가 인기를 누린다. 그 만큼 개인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문화예술 감상, 둘레길 걷기, 인문학 강의, 심리치료, 여행 등이 다 유용한 해결 방안이겠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극복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승패도 결국 자신이 마음먹고 실천하기에 달려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고통의 날이 다하면 기쁨의 날이 온다는 말이 부쩍 실감난다.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소기의 결실을 거두리라고 확신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긍정하면서 새로운 꿈을 찾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밝게 만든다. 긍정의 힘이 나 자신뿐 만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운다. 작은 것 하나부터 차근 차근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마음 든든해진다.

한 해의 마감 달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보살펴 주고 격려해 준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물질위주와 경쟁위주의 세태를 넘어 인간존중의 지역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더 그리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요리와 글 맛

언론사 게재

김영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 달이다. 오늘 같이 스산한 분위기면 라면이 당기는 날이다. 입안에 침이 감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낀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밥상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 밥상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열으면서도 진하고 무미한 것 같으나 만 가지 맛이 있는 모유에서 생애 첫 맛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느 유명한 요리 전문가의 말이다. 결국 어미가 몸으로 준 맛이야말로 마음으로 준 맛이었음을 깨닫고 그리워한다. 정갈한 마음과 사랑하는 정성이 없이는 좋은 맛을 낼 수 없다.

나이 탓인지 입맛도 단조로워 지고 단순한 맛으로 변하는 것 같다. 찌개보다는 말갭게 우려낸 국물 맛이 더 좋다. 예년 같으면 별 신경도 안 썼을텐데 까다로운 입맛에 김장을 거들었다. 어깨너머로 보기만 했지 직접 체험 해보기는 처음이다. 발효가 되어 동지쯤 지나면 맛이 일품으로 변해 갈 것이다. 그 비결은 대상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리라.

맛을 내는 과정은 머리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귀한 노동이라고도 했다. 첫사랑의 느낌 같은 좋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글의 여정은 참으로 변화무쌍하며 쓰고 맴고 달고 짜고 시고 뚝은맛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맛까지 간파해 나간다. 스스로 체득해 가며 느낀 글맛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글맛이었음을 알아차릴 때 내 자신은 비로소 글속에 녹아있게 된다.

글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나’라는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나를 해체하는 것과도 같다. 해체는 반드시 상처를 수반하고 상처는 나를 긍정적으로 치유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해체가 되어야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다. 글쓰기는 상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고아한 글맛은 그 뜻이 형상 밖에 있다. 차 맛으로 치자면 다선일미 경지일 것이다. 결국 요리와 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도 내 삶의 여로와 다르지 않음을 안다.

심심하고 맑은 기운을 머금은, 고요와 사색에 사무친 아득하고도 깊은 맛의 여운을 물들이는 나이고 싶다.

한반도 통일펀드조성 창원시가 나서야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언론사 게재

최근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대한민국 재탄생과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후 통일대박에 대한 각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 독일의 전례에서도 봤듯이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전 국민 통일 펀드조성에 우리 창원시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되는 때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일 한국은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5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통일 대박론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한반도 통일에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편익)에 관한 연구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에는 3천조원 이상이 투입됐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1경4천451조원으로, 통일예상 비용 4천657조원의 3.1배에 달하고, 2060년 통일 한국의 GDP는 5조5천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가 7만9천 달러로 세계 7위에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한반도의 북한지역 GDP는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 또한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예산 정책처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들은 통일비용을 대북 투자로 보면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기가 활성화하고, GDP의 2.8%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독일 수준 GDP의 1.5%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북한의 노동력 활용, 지하자원 개발, 관광 수입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추가적인 편익도 기대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과 편익의 추산치는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일의 편익이 비용을 웃돈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 위원회는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GDP가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20년간 구,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비용으로 약 2조 유로를 썼으며, 연간 지출 규모는 독일 GDP의 5%선입니다. 서독 정부는 통일 전부터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하는 동시에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독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서독 차량의 통행료 명목으로 연간 15억 마르크를 지불했습니다. 독일은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쏟아부었고 통일 독일이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럽의 맹주를 넘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서게 됐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적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펀드 조성사업에 각 기관과 기업체를 비롯한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와 집행기관과 유관단체, 기업이 선두에 나서 창원시민 1인, 1천원의 통일펀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08만 창원시민의 공지를 대외에 공표하고 후손들에게 통일 대박의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진해 외국인학교 설립되야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언론사 게재

2011년 4월 6일 수요일 오후3시 경상남도과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도청 2층 도청 회의실에서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자 James Haddon,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장, 하명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안승택 경상남도 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주)진해오션리조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학교 설립을 협력하는 내용에 서명하는 협약식이 거행되었다. 이 학교는 경제자유 구역 내 처음으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입학자격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와 해외에서 3년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이 다닐 수 있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총 정원의 30~50% 선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경남도교육청이 정하게 된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웅동지구 약 33,000㎡에 2천만불을 직접 투자하여 창원국제외국인학교를 2014년 개교 예정이며, 유치원, 초·중·고(K-12)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2013년 7월 경남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 부근의 병원, 골프장이 학생들의 유익한 환경에 부적합하고 인접한 물류단지의 소음 먼지 등의 이유로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을 권고하는 교육환경 영향 평가서를 경남개발공사에게 내놨다. 2014년 4월 남문지구(경자청)에 외국인 학교 설립부지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는 학교보건법과 남문지구 개발과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불가하다고 부산진해경자청에 회신을 보내오는 과정을 거치며 구)육대부지를 포함한 사파지구, 용원지구2곳(시유지), 폐교된 명동분교와 안창초등학교등에 현재 설립 부지를 검토 중이다.

제8회 창원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8회-기획행정위원회/중략) 자료를 보면 창원시 투자유치과장은 초, 중, 고등학교, 유아원까지 포함해서 한 1천명 정도 잡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백억에서 4백억 정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천만불을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된다. 나머지 금액은 기본적으로 외투 기업이나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도와고 시의 부담비율은 50대 50으로 정해져 있다. 대구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120억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와 시가 다 부담을 해서 건립한 예는 있다고 밝히고 외국인 학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 하겠다고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2014년 외국인 학교가 개교되면 외국인학교가 없어 부산, 대구, 서울 등으로 장거리 유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년 1,000여명 이상의 유학생과 귀국하는 학생의 교육수요를 충족하여, “글로벌 인재육성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창원시의 성공여부는 약속과 신뢰의 땅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창원의 관광지 외래어명칭을 순수한글명칭으로 전환하자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언론사 게재

10월 9일 569주년 한글날을 앞두고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에 정체불명의 외래어로 된 둘레길과 공원 이름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다. 둘레길과 공원의 이름을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과 특성을 살린 우리 말로 바꾸어 창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걷기 열풍을 일으킨 제주도 올레길은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씨가 2006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돌아와서 2007년 9월에 시흥에서 광치기해변으로 이어지는 15.6km의 올레 1코스를 개장한 이후 6년만인 지난 2012년 11월에 제주도를 일주하는 21개의 코스를 개통하여 한해 수 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올레는 “집대문에서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이라는 제주도 방언이다. 제주 올레의 성공사례는 일본의 규슈가 지난 2012년 과감히 제주 올레를 수입했다. 코스 개발의 경험은 물론, 매년 사용료와 홍보료를 제주 올레측에 지불하며 올레라는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다. 올레길이 정체불명의 외래어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올레길 뿐 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이름의 길들이 무수히 많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북, 전남, 경남 3개 도에 걸쳐, 5개 시군, 120여개 마을을 잇는 장장 274km 22개 구간의 대장정인 지리산 둘레길, 가야산 입구에서 해인사에 이르는 6km의 해인사 소리길, 충북 괴산군 칠설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하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괴산의 백미라고 하는 산막이옛길, 여수에 가면 꼭 가봐야 한다는 비경인 금오도 비렁길, 소백산 아래 너른 구릉과 마을, 옛길을 이어 만든 길이라는 의미의 소백산 자락길의 자락은 '논밭이 넓게 펼쳐진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가장 최근에 조성된 부산 갈매길의 갈매는 부산의 새, 갈매기와 짙은 초록색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강화 나들길, 군산 구불길, 강릉 바우길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유의 우리말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름을 가진 둘레길이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창원시 진해구 안민도로에서 시작해서 총 4개코스 27.4km에 조성된 임도의 명칭은 드림로드이다. 드림로드는 지난 2008년 4월 시민 명칭공모를 통해 진해 드림로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여 불리고 있다. 드림로드는 4월이면 흐드러진 벚꽃과 진해만을 감상할 수 있고 계절마다 화려한 꽃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여 2006년에 전 건설교통부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드림로드가 창원시 진해구의 풍광과 특성을 살린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드림로드를 우리 말로 직역하면 “꿈길”이다. 여기에다 좀 더 의미를 더한다고 해도 “꿈꾸는 아름다운 길, 꿈에서 만난 아름다운 길” 이정도의 의미 밖에 더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말의 풍부한 표현력과 고유의 특성을 살린 명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래어인 드림로드라고 명칭을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7월 세종시가 둘레길 명칭을 전국에 공모한 결과 500여건이 접수되고 금강나루길 등 7개의 명칭을 후보작으로 정하고 최종 명칭 선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창원시도 진해 드림로드에 대하여 진해의 특성과 한글 고유의 이름을 전국 공모를 통하여 다시 선정한다면 선정과정에서 진해 임도의 아름다운 비경을 전국에 다시한번 알리고 창원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창원시 관광 균형 발전국과 관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편백나무숲과 목재체험장 등이 어우러진 드림파크도 한글 이름으로 함께 공모하여 명실상부한 창원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수있는 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안민터널 해소방안은 없나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언론사 게재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말에 진해구 18만2498명, 마산합포구 18만1659명으로 창원시 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적었던 진해구가 최근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입주에 따라 인구가 늘어났다 시운학부 부지에 해군관사 500가구, 마린푸르지오 아파트 2192가구가 입주하면 1만4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은동, 풍호동, 신항 배후부지 등에 대형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어 2020년에는 현재보다 인구가 38% 늘어 2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결과 안민터널 교통사고는 2010~2014년 5년 동안 50건이 발생해 전국 터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안민터널은 2008~2011년 4년 동안 전국 6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3~4년 사이 사고 순위가 3단계나 더 올랐다. 안민터널 교통사고는 성산구에서 진해구 방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급경사에 따른 추돌사고다 운전자들이 성산구 쪽 터널 입구에 정체가 없을 경우 60km 이하의 터널 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80~100km로 터널 내부로 진입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창원시가 진해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2안민터널(석동터널) 건설 사업을 내년 2월 착공한다 터널 길이는 1925m로 총사업비 1960억원을 들여 진해구 석동 IC에서 성산구 천선동까지 3.85km(4차로)의 도로건설을 준비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께 현재 공사 중인 석동~소사 도로, 귀곡~행암 도로까지 완공돼 도심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안민터널은 하루 3만9200대, 시간당 1,500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다.

현재 안민터널 하루 통행량은 6만7000여대로 출, 퇴근시간에는 시간당 2,500대~3,200대로 설계당시 운행 적정수준인 3만9200대를 크게 웃돌면서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도심전체가 마비되 사회적 간접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와 진해경찰서는 안민터널 내 접촉사고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성산구에서 진해구 방면 출구쪽 300m 구간 총 20개소에 경광등(싸이키등)을 설치하고 조명의 조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미끄럼 방지시설, VMS전광판설치, 우회전 전용차로 길이연장, 좌회전차로 포켓연장을 준비하고 출구에 1,2차로의 좌회전 전용차로와 3차로는 직, 좌 동시허용하며, 4차로는 우회전전용차로 공사를 12월중 완공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안민터널출구 진해방면 3호광장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여야하나 사업비(350억)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대우프루지오, 롯데씨네마와 상가등이 입주를 완료해 지하차도 설치시 도로 확장부분도 걸림돌이다 통합이후 행정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진해는 바다와 산의 중심부로 외부로부터의 이동수단은 터널이 70%수준이다. 안민터널은 동부와 서부의 요충지로 차후에도 교통량의 무한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진해방면 출구는 3호광장까지 내리막길이고 경찰서방면으로 오르막길이다 지형을 이용하여 터널 출구에서 경찰서까지 좌회전전용 넓이 6M짜리 고가도로를 설치하여야한다 고가교 설치로 필요한 도로확장도 경찰서방면 양측으로 녹지공간이 있어 도로확장도 용이해보인다.

글로벌테마파크와 신항의 수요증가로 제2안민터널은 산업용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당장 고가도로설치 실시 설계용역이라도 해보자.

창원광역시 승격과 지방행정 체제 개편정책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언론사 게재

정부는 창원시통합을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 운용이늘고,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증가되고 도시성장의 신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통하여 동반성장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장미빛 환상으로 3개시가 통합했다. 당시 행안부가 통합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은 주민생활편의와 행정효율성의 증대였다. 3개시통합으로 절감되는 행정비용이 10년간 2200억원에 달할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2009년 작성한 “창원, 마산, 진해 통합효과 분석결과” 공무원 규모조정(인건비, 운영비 61.5%) 1358억원, 선거비용및운영감축(단체장, 지방의회1.6%) 36억2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감소(10.8%) 238억5000만원, 중복시설감소(227.7%) 502억8000만원, 중복지역축제감소(3.2%) 71억2000만원등 10년동안 2206억으로 책정됐다. 통합창원시의 현주소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정책의 실패로 인한 극심한 내용에 휩싸여있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한발 나아가기가 무척 힘들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실시까지 어느 하나 수월 한 것이 없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부로부터 146억원씩 지원되는 통합인센티브를 포함해도 창원시의 재정이 날로 심화 되고 본청을 포함한 각 구청별 예산도 편성하기 벅찬 상황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졸속통합이 원인이다. 3개시 분리를 하던 통합인센티브의 수준과 기일연장이 필요한시점이다. 우리 창원시는 자구책으로 100만인구의 저력을 몰아 광역시 승격 주민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기초권한으로는 광역수요 행정의한계, 기초재정권으로 광역재정수요 대응불가,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의지의 불투명, 분리요구등 지역간 갈등의 고질화, 기계산업등 전통주력산업 경쟁력정체 등을 이유로 광역시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3개시 통합과정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라고 홍보한 사안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허구임이 입증됐다. 2014년 부로 교부세 2399억원과 소방재정보전금 889억원은 지원 종료되어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2014년까지 정부의 시, 군 통합 정책은 실패와 중단으로 통합창원시는 전국의 유일한 기형적 자치단체로 전락했으며 3개시를 분리하여 원상 회복하는 것이 정답이다. 광역승격시 지역별 자치권을 가지고 구청장 직선,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자치권으로 생겨나는 구의회의 신설, 각 구청별 행정조직 및 중첩현상, 자치구마다 지원시설 보유 또는 신설등 부적합한 사안도 면밀히 검토되어야한다. 통합당시 꿈꾸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 분리보다 어렵다는 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창원시민 모두는 중앙정부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패를 몰아 정부에 3개시를 원상복귀하거나 기형적 자치단체를 광역시로 승격하여 올바른 지자체의 모델로 삼아야한다고 우리는 큰소리로 요구해야할 것이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이 타 시군에 이기 주의로 비칠 수 있다. 광역시 주장은 국가적 측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활로를 터놓은 상태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통합한지 5년 통합은 실패했고 우리 창원시 현주소는 지방살림은 줄어들고 집안식구가 늘어난 시점에 어렵고 벅찬 형편에 대출받아 빌딩을 소유한 형국이다 중앙정부가 결사해지하여야한다. 3개시를 분리하던지 광역시승격을 하던지 양자간에 결정을 하여야 108만 창원시민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민과 창원시와 의회가 함께 광역시매듭을 풀어야할 것이다.

창원시 복지담당 이대로 좋은가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언론사 게재

우리 시는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사업의 구조 조정과 행사 축소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 지난 8월 발표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지난해 12월 기준 창원시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은 258명이지만 현원은 245명에 그쳐 확보 비율이 9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접한 김해시는 119명 정원에 120명으로 100.8%, 밀양시는 59명 정원에 64명으로 106.7%, 남해군은 30명 정원에 46명으로 정원보다 훨씬 많은 153.3%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보 하고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다른 시와 전체공무원 대비 사회복지공무원 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 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김해시는 9.2%, 양산시 8.1%, 거제시는 7.9%, 진주시는 7.4%로 조사대상 4개시 모두 사회복지공무원의 비율이 우리 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창원시의 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4,175억원으로 전체예산에서 24.75%를 차지하다 올해는 6,645억원으로 35.47%로 무려 예산이 59%(2,470억원)나 늘어나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현재 우리 창원시의 일반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는 242명이지만 복지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복지대상자는 7월말 현재 172,932명으로 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는 576명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2.3배나 많은 실정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정부의 복지 정책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최일선에 있다. 복지 예산과 업무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정부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족해 현장 방문은 업무도 못 내고 책상에서 서류와 시름하고 전화 받기도 바쁜 현실이라면 모든 것은 공염불이라 생각 된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누수도 복지공무원 부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복지 업무와 담당 공무원이 유지될 때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것이다 창원시 살림을 걱정하는 우리 모두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며,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결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복지대상자 현황

(’15. 07. 31일 현재)

계		기 초 수급자		차상위 계 총		기초연금 수 급 자		장애인복지 (연금, 수당)		한부모 가 족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세대	인원(명)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인원
96,528	172,932	13,359	18,589	8,896	14,231	59,254	71,315	11,519	11,992	3,312	7,801	188	211	48,793

※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담당 인원 : 576명

※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담당 인원 : 1,253명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